

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67

2016. 8.21

2016년 주님의교회 표어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출 5:3)

오늘의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시편 138:1-2)

오늘의 주요기사

- 2 비전트립
- 3 역비전트립, 교구수련회
- 4 우리들의 여름
- 5 우리들의 여름
- 6 중등부 수련회, 청년부 선교
- 7 목회칼럼
- 8 아가나들이

교회 일정

- 8/30(화) 예친사 2학기 개강
- 9/4(주일) 성찬주일
- 9/6(화) 양육클래스 개강
늘푸른대학 개강
- 9/9(금) 겨자씨 모임시작(금요기도회)
- 9/12(월) 정기당회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더위, 더위, 더위!

덥다. 더위도 너무 덥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7월 22일부터 근한 달이 지나는 동안 서울 지역 열대야가 없던 날은 불과 2~3일 정도라고 한다. 작년 같은 기간 열대야 발생 일수가 10일 안쪽이었던 데에 비하면 기록적인 폭염이다. 열대야는 하루의 최저 기온이 섭씨 25도를 넘는 밤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장마가 끝난 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했을 때, 밤에 복사냉각효과가 감소하면서 나타난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미 지난겨울에 2016년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2월 가디언 지는 영국 기상청의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서 2015년의 엘니뇨 현상이 2016년까지 이어져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미국 해양대기관리청에서도 2015년 11월의 육지와 해상의 기온이 1880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지 13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016년의 이상기후를 예측했었다.

기독교인에게 더위는 어떤 의미일까. 이집트와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여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낮과 밤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집트의 사막 지대 뜨거운 낮에 구름으로 해를 가려서 더위를 막고, 밤에는 불을 피워 추위를 덜게 했다는 의미로도 이해되고 있다.

한편, 추위와 더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연의 섭리였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홍수에서 못 생명들과 함께 구원하신 후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세기 8:22)고 말씀하신 것은, 추위와 더위가 겨울과 여름, 밤과 낮과 같은 자연의 순환임을 의미한다. 한편 더위와 추위는 고난과 시련의 상징이기도 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주리

므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요”(신명기 32:24)라고 했다.

이런 더위 속에서도 소나기와 같이 힘을 주시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셨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이사야 49:10)라고 하셨다. 예레미야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예레미야 17:8)고 하셨다. 아직도 끈질긴 더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버틸 수밖에!

함즐함울

키르기즈스탄 비전트립

소망의 땅으로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된 키르기즈스탄 비전트립은 지난해와 같이 KKC(Kirkiz-Korean College)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강좌를 실시하였다. 수공예, 한국무용, 한식요리, K-POP로 구성되어, 3일간 5개 강좌로 진행되었다. 작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이 올해도 우리 팀이 다시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의 사역이 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문화와 한류에 대한 인기가 많아서인지 학생들이 강의를 빠르게 이해하였으며, 인원제한으로 포함되지 못한 친구들과 동생들도 참여하였다. 운영수/김미숙 선교사님이 담당하는 현지 가정교회에서 예배와 함께 현지인 바O자매의 세례(침례)식이 있었다. 현지에서 한 영혼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정말 어

렵고 또 소중한 결단이기에 우리는 바O자매의 세례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복하였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초청하여 국립극장에서 그동안 연습한 내용을 공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지 학생들과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는 KKC에서 이별의 시간을 가졌다. 모두들 아쉬워하면서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주일은 현지교회에서 현지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의 형제임을 느꼈다. 복음의 척박한 이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했다. 키르기즈스탄이 중앙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민족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와 이슬람권의 복음화 전초기지가 되도록 기도하며 소망한다.

이재홍 집사



KKC 한국문화 강습

베트남 비전트립

그들이 처음 만나는 성경이 되어

비행시간만 4시간 30분, 54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인구 1억을 향해 달려가는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 히우탄면 보건소엔 의료팀이 온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당을 빼곡히 메우고 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소박한 웃음에 환한 미소로 기다림을 즐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직은 아버지를 모르는 아버지의 백성들, 선교가 금지된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무도 작았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다. 기실 몇 년 전만 해도 진료에 제약이 많아서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엔 초청장이 없는 사람들도 진료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방문해 달라고 감사장까지 주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을 예비하셨고, 일하셨고, 그리곤 우릴 맞으셨다. 집짓기 사역팀에 참여해 제몫을 톡톡히

해내는 우리 고등부 14명은 정말 사랑스럽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분명 그랬다. 쟁 라이란 이름을 가진 7살 꼬마랑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에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보여주신 듯했다. 스킷드라마를 보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아저씨가 있어서 좋았다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모르는 그들에게도 꼭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한다. 내 몸을 내어주어 불사르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인데 사랑의 마음으로 왔기에 우린 이미 그들에게 최초로 접하는 성경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정미영 집사



교과서 전달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91

聖物(성물)의 **材料**(재료) 중
乳香(유향: incense)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출애굽기 30장 34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마태복음 2장 11절)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감람과의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젖빛갈의 芳香(방향) 물질(balm)이다. 성전 분향을 위한 향 재료 및 성별 의식에 사용된 聖油(성유)의 재료였다. 선물, 사치품, 약품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고대에는 매우 귀하게 여겨졌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황금과 유향과 몰 약은 가장 좋은 선물이면서 최상의 예물이다. 동방박사들이 아기예수께 드린 예물로 황금은 예수의 왕권을, 유향은 예수의 신성을, 몰 약은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한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乳(젖 유): 손이나 손톱을 뜻하는(손톱 조)와 아기모양을 상형화한子(아들 자)와 자라나다. 나아가다의 뜻을 지닌 乙(새을)의 변형체 L(새가슴)을 결합시켜【손으로 아기를 안고 자라나도록 먹이는 것이 엄마의 젖이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香(향기 향): 곡식을 대표하는 禾(벼 화)와 태양을 상형화한 日(해 일. 날 일)을 합쳐【벼이삭이 햇볕에 익는 냄새가 향기롭다】고 표현하여 기분 좋은 풍년의 기쁨을 나타내었다. 사실 벼 익는 냄새가 향기롭지는 않으나 농부의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다.

함줄함울

섬기는 손 34



암병동, 무더운 병상에서 발밑으로 떨어지는 머리카락 환우의 삶과 함께하며 수십 차례 항암 주사로 인해 빠지는 머리카락을 정성 다해 이발을 해드리는 섬김의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역비전트립

해외선교지 청소년 초청수련회

선교지 청소년 초청 수련회는 선교지 청소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현지 복음화에 헌신하는 비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기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선교지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타 선교지 청소년들과도 교류하도록 한다는 목적과 파송 선교사의 현지에서의 지지기반을 확립시키는 목적도 갖고 있다.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6박 7일 동안 베트남 6인(1인은 인솔자)과 키르기스스탄 6인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베트남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로서 소수민족 청소년도 4인 포함되어

있었다. 키르기스스탄은 선교사가 이끄는 가정교회 교우 3인과 태권도 제자 3인으로 구성되었다. 수련회는 우리나라에서의 선교사들의 기여와 희생, 장신대 탐방, 양화진 선교사 묘역 탐방, 재한몽골학교 탐방, 홈스테이를 통한 우리나라 가정 경험, 그리고 문화탐방 등으로 구성되었다. 몇 명 안 되는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청소년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돌아가 언젠가 자기 나라의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귀한 생명들이라 생각하고 모두 정성을 다 하였다. 이 행사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고광중 집사



복지시설 방문

교구수련회

해외선교지 청소년 초청수련회

서울에서 떨어진 곳에 직장이 있다는 핑계로 상당히 오랜 기간을 'Sunday Christian'으로 지내며 나 스스로를 정당화시켜왔었다. 올해 안식년을 갖게 되면서 'must do list'에 올려놓았던 일 중 하나가 교구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등록 후 10년이 넘어서도 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다보니 같은 교구 성도들도 낯 설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들을 함께 지내야 하는 수련회가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뭣이 중한디?'라는 윌트 넘치는 수련회 키워드가 내 얼굴을 달아오르게 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 주시는 예수님

을 나의 구주라 버릇처럼 고백하면서 정작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을까? 걱정 반, 부끄러움 반을 갖고 참여하게 된 수련회는 준비과정부터 많은 분들이 각자의 형편과 달란트대로 수련회 과정을 빼곡히 채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첫날의 많은 프로그램 순서 뒤에 경건의 시간에 이르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은 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 이튿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마주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가족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정진원 집사

역비전트립

베트남의 희망, 기도하는 젊은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해외 역비전 트립으로 방문하는 학생들이 한국의 일반 가정을 경험하도록 홈스테이 신청을 받는다고 하였다. 베트남 어라야 딱 두 단어 밖에 모르는데, 하루를 함께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선뜻 신청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팀장 집사님의 권유로 베트남 대학생 2명과 함께 하게 되었다. 다행히 2014년 가족과 함께 참여했던 베트남 비전 트립에서 만났던 그 곳 학생 2명이 이 후 한국으로 유학을 왔고 그들과 계속 만남을 가졌었기에 도움을 청하여 통역을 부탁하였다. 우리 집에 온 학생들을 만나 서울을 본 느낌, 진로, 가족이야기 등을 나눌 수 있었고, 서울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와 한

국의 놀라운 발전상에 대해 부러워하며 베트남이 한국을 모델삼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날 아침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났을 때 우리와 함께했던 베트남 젊은이가 거실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직 기독교인이 많지 않은 베트남이지만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베트남 위에도 있을 거라 확신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홈스테이로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고, 또 역비전트립에 참여할 수 있어 고마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더욱 감사했다.

이혜신 집사



강화도에서

교구수련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4-5교구 연합수련회가 진새골 사랑의 집에서 합니다'라고. 준비물에는 '기쁜 마음'이라고 보는 순간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지치고 힘든 마음이 회복되고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도 준비하고 수련회에 참여하였다.

아름다운 진새골 사랑의 집에서 전도사님과 찬양팀의 인도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로렘 나무 아래에서 쉼과 회복과 사명"이란 주제로 여는 예배로 저희 마음을 열었다. 밤에 내리는 비는 저희 마음을 축축이 적시는 단비와 같이 저희 마음을 은혜로 적

셔주었다.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지치고 힘든 영혼과 몸이 쉼과 회복을 통해 사명으로 나아간 것처럼 저희들도 지치고 곤한 가운데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저녁 식사와 더운 날씨에도 기쁨과 사랑으로 준비한 맛있는 감자와 수박으로 일상의 피곤함을 잊고 활기를 찾았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르치라는 사명을 다시금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였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장현주 집사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



하늘씨앗 영아부

동물로 변신한 선생님들과 함께 친구들도
동물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청년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청년부



썩트네 유아부

터널을 통과하여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



담쟁이 유치부 시원한 물놀이



중등부 여름수련회



포도나무 유년부

성경학교 첫째날 함께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찰칵!



포도나무 유년부

지금은 성경학교 예배시간이
셋!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



아름드리 소년부 꼬치구이



담쟁이 유년부 모두 모여 공과활동



썩트네 유아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멋진 얼굴로 바뀌어요



청년부 마을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청년부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순회공연



아름드리 소년부 십자가 기도회



햇살뜨락 초등부 신나는 물놀이

달려가요!

시간이에요.
!도드려요

중등부 수련회

뜻밖의 만남

나는 늘 수련회 가기를 싫어했고 지난 겨울수련회도 억지로 갔었다. 이번에도 가족과 여름휴가를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의 나태함을 알고 인도해주셨다. 예상대로 수련회장에 있는 벌레와 날씨 등 불편함 때문에 다시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첫째 날 집회가 시작되면서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예전처럼 뜨거운 마음도 없었고 기도를 하다가도 깜빡 잠이 들었다. 지난 겨울수련회를 다녀온 후 그 동안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나 생각하였다. 둘째 날 일어나니 감기 기운이 있고 피곤하고 아파서 걱정을 많이 했다. 전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수련회에 와서 허탈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둘째 날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랐다. 집회가

시작되자 은혜로운 마음이 생겼고 방방 뛰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났다. 그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진짜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것 같다.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하게 되었다. 집회가 끝난 뒤 캠프파이어에 가기 너무 힘들었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났다.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 기쁘고 뿌듯했다. 그 다음 날 몸이 많이 아팠지만 모두가 기도해주셔서 아픔조차도 감사하게 느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수련회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린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다시 만나 모두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고 이 화목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중등부 전수민

중등부 청소년 예친사

국내 성지 탐방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청예사(청소년 예수친구사역) 3기 학생 8명, 선생님 4명 그리고 담당 목사님이 함께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첫 방문지는 금산교회였다. 7자교회로 유명한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등에 대해 배웠다. 조덕삼 장로님과 그의 머슴이던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신분사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섬기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7자가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나누기 위해서 만든 차별의 형태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남녀칠세부동석’을 주장하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7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문준경 전도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였다. 두 분은 믿기 힘들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았다. 문준경 전

도사님은 오랫동안 의지할 사람 없이 지내다가 전도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셨다. 핍박과 박해를 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전도하다가 결국 일본군의 죽장에 의해 순교하셨다.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환자들을 정성으로 섬기셨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센병 환자 발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제거한 것이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이렇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믿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함으로써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었다. 이번 국내 성지 순례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돌아가서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중등부 박솔지

청년부 국내선교

청년, 복음의 불모지 제주에 가다

청년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제주도로 국내선교 사역을 다녀왔다.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제주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기에, 청년들은 2년 만에 다시 제주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되었다. 선교팀은 아름다운교회(제주시)를 본부로 삼고, 사역자가 없어 교회가 1년 이상 문을 닫았던 우리평강교회(애월읍 구엄리, 담임 김동석 목사)와 5년 전에 개척된 고내리 최초의 교회인 고내소망교회(애월읍 고내리, 담임 김용순 목사)에서 사역하였다. 청년들은 현지 교회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와 지역 주민들을 섬겼다. 선교팀은 마을회관에서 의료봉사와 이미용 사역을 진행하였는데, 주님의교회 이미용팀이 이 일을 위해 수년간 청년들과 함께 해주었다. 또한 주민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충망을 교체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두 마을 경로당에서 마을잔치

를 열어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섬겼다. 청년부의 올해 여름 사역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청년들은 제주에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러 갔지만, 선교를 마치고 보니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제주를 우리에게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복음이 시급하게 전해져야 할 선교지이기도 하다. 1907년 복음이 전해진 이후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복음화율은 8%가 채 되지 않으며, 외지인을 제외하면 원주민의 복음화율은 2%에 불과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청년들은 제주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며 그 땅의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을 발견하였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청년들은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결단한다. 청년부

정신여고

제48회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순회연주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열개의 도시에서 모두 열여섯 차례의 연주회를 진행하였다. 안동 경안고등학교는 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힘찬 함성으로 맞아 주었고, 학생들 뒤편에 계신 몇몇 선생님들의 리액션과 남학생들의 행동은 부담스러웠지만 재미있었다. 포항 해병대 제1사단에서의 연주는 원래 예정되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이 불러 와주어서 기뻐했다. 해군병원에서는 사고와 질병으로 몸이 불편한 군인들이 연주를 보러 왔다. 특히 ‘어머니’라는 곡을 부를 때 몇몇 오빠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며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노래를 듣는 그 시간만큼은 위로 받기를 소망하며 연주를 했다. 부산 청학농예원은 노인성 질환과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연주 장소가 야외 운동장이었는데 노랫소리를 듣고 나온 지역주민이 앵콜을 요청하

기도 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부산교도소에서 연주를 했다. 교도소는 처음 가보는 곳이라 매우 긴장되었다. 나이가 지긋한 약 삼백 명 정도 수용자들이 우리 연주를 감상했다. 노래가 계속 될수록 그들과 우리들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어머니’를 부르고 난 후에는 우리를 바라보는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주를 마지막으로 마친 후 우리들은 모두 해 내었다는 감격과 감사, 아쉬움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비록 순회연주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은 매우 지치고 힘든 일의 연속이지만 연주를 통하여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음악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다. 시간이 갈수록 주는 것 보다 받는 것이 더욱 많아졌고, 오히려 더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던 귀한 순회연주였다.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목회칼럼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다

삼위일체 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 경륜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과 고통과 죽음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온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평화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에게 내려진 십자가 사형 선고는 이 세상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죄의 본성, 곧 의인을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거

부하는 세상의 악한 본성을 폭로합니다. 더불어 십자가는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계시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의 죄악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세상의 죄와 악을 궁극적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죄악과 고통과 죽음을 자신이 대신 짊어짐으로써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화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도처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대면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공허함, 허무함, 절망감, 두려움 속에서, 가난과 질병과 장애 혹은 그것과 연관된 주변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헐뜯고 괴롭

히고 억압하고 차별하고 착취하는 폭력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의 탐욕이 부추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깨어지고 상한 자연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화해가 아직까지 우리의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9).

김정형 목사

미션 퍼스펙티브스(PSP) 선교 교육



퍼스펙티브스(PERSPECTIVES “관점들”) 선교훈련은 성경과 선교를 하

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알려준다. 미국세계선교센터를 창시한 선교신학자 랄프 윈터 박사가 개발한 훈련으로 1973년 북미를 중심으로 시작한 이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사역을 확장하여 현재 목회자 및 사역자들을 비롯한 2만 여명의 성도들이 수료하였다. 선교를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

적 관점에서 조망함으로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5회 째를 맞고 있는 주님의교회에서는 9월 22일(목)부터 12월 15일(목)까지(11월10일은 수능으로 휴강) 12주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제3집회실에서 3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4년 동안 200여 명의 성도들이 수료하였다. 그동안 여러 선교훈련 과정들이 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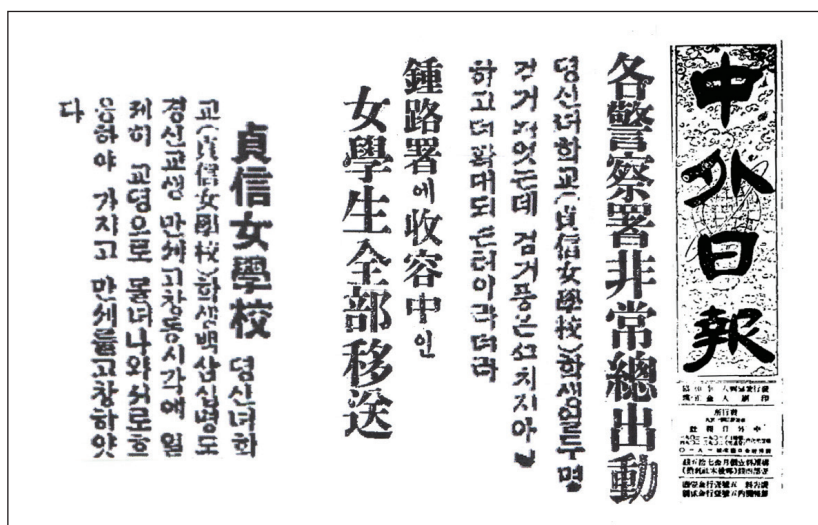
만 퍼스펙티브스 훈련은 그 어떤 선교 훈련보다 심도 있고 포괄적이며 먼저 머리로 선교를 이해한 다음 가슴으로 이해하도록 참가자들을 돕고 있다. 수료자들 대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귀한 기회였다고 고백한다. 주님의교회 성도라면 모두 이 과정을 수료해 보기를 추천한다.

손영익 안수집사

정신학원에 잇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 34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12)

일제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



1919년 만세운동 이래 일본은 교육 방침은 으르고, 달래고, 속이며 일본에 융화시키기에 힘썼다. 그리고

일제에 따르지 않는 소수의 학교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차츰 일제의 의도가 무

엇인지 알았다. 일본인에 대한 경멸의 감정이 더해졌다. 이것이 쌓였다 폭발하였다. 1929년 11월 3일 전라남도 광주군에서 시작한 학생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 운동에 참가한 학교 수가 194개교였다. 경찰이 진압하고, 가두고 달래고 애를 써서 이듬해인 1930년 4월 경에야 멈추게 되었다. 정신여학교는 12월 13일 휴학을 선언하였다. 1930년 1월 15일에는 학생 90여명이 교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교직원과 경찰들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흥분하며 울부짖으며 만세를 불러 부근일대가 야단이 났다. 이후 정사복 경관과 기마경관이 학교를

철통같이 경계를 했다. 이 소요로 정신여학교생 12명이 검거되고, 세 명이 동대문서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넘겨졌다.

학생 만세사건에 대해 고등법무국 검사는 시위에 참가한 학생이 있는 학교에 교사들을 소환해 심문을 하였다. 정신여학교에서도 교사 한명이 소환되어 학생의 평소 소행과 성격 여부를 심문 받았다. 아울러 차후 맹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요섭, 송진우, 이광수 씨 등을 참석시켜서 학교 교사들과 방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포마 인터뷰

아이들과의 만남이 즐거워

킹덤 비전 영어 캠프에 교사로 참여한 Andrew Fischer씨는 올해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수영특기자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그는 자신이 잘 하는 분야에서 헌신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 캠프에 참여하였다.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신앙과 마찬가지로 관계에서 출발한다며 많은 아이들 개개인과 관계형성에 공을 들인다. 가을에는 중국 상해에서 가르치게 될 것 같은데, 더 많은 아시아 문화를 경험하길 희망한다.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한국에서 먹은 차가운 냉면이 맛있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함줄함울

교회 단신

제 8차 전국교회 청소년 수련회

제 8차 전국교회 청소년 수련회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20여 교회에서 교사와 청소년 180여명이 참석하였다. '3D- Different, Dream, Decision'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아 떠나는 3D 여행, 그 여행의 서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과는 다른(Different)가치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깊은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해 가는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

함줄함울



교회 단신

2016년 Kingdom Vision English Camp

킹덤 비전 영어캠프가 8월1일~11일까지 2주간 열려 초등 3학년~6학년 55명이 참석하였다. 올해 제목은 'Everest'-Conquering challenges by God's power이다. 학생들 절반 이상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여할 만큼 만족도가 높아, 계획된 50명 보다 많은 55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회비 일부가 고아원에 기부되고, 2주간의 질 높은 영어캠프를 교회의 지원과 봉사로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과의 대화에 친숙도를 높일 수 있어서 내년에도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함줄함울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아기나들이



김민서 아기

2016년 3월 13일생

1. 건강하고 행복하게 무럭무럭 자라주기를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늘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3. 민서와 함께 저희 가족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빠 김세현 / 엄마 김현지, 2016년 8월 14일 3부 예배



김지율 아기

2016년 6월 6일생

1. 지율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2.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태평)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3. 지혜롭게 빛나는(지율) 삶을 살아가도록

아빠 김정수 / 엄마 신유정, 2016년 7월 24일 2부 예배



이주원 아기

2015년 11월 20일생

1. 주원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2. 주원이 정신, 육체적으로 건강하여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아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3. 주님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 안에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빠 이태규 / 엄마 홍정은, 2016년 8월 14일 3부 예배



최정후 아기

2016년 2월 5일생

1.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해주세요.
2. 매사에 감사하며, 용기있고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게 해주세요.
3. 항상 꿈을 꾸고, 비전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빠 최민경 / 엄마 김수미, 2016년 7월 17일 3부 예배

교회 단신

교회 방문패 교체



지난 7월 처음으로 교회 건물 내 모든 방의 안내문패를 교체했다. 새 안내문패는 글자체와 색상에서 변화를 주었다.

함줄함울

교회 단신

남선교회 연합 조찬 기도회

제 1회 주님의교회 남선교회 연합 조찬 기도회가 7월 28일 오전 6시 30분에 열렸다. 174명의 성도들이 (여선교회 32명 포함)참석하여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알곡공동체로 살기를 기도드렸다. 2부 특강에는 임동진 목사가 수고하였고, 특강 후 교회와 남선교회 발전을 열망하는 기도를 드렸다.

함줄함울